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영어 영역 - 해설편

Before You Read!

고3, 재수동안 영어만 치면 89점이었던 내가 삼수를 하면서 영어에 한해서는 계속 만점 혹은 1등급이 나왔었는데, 1년간 어떤 점이 달라졌고, 무엇 때문에 한 두문제를 더 맞출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서 작성한 분석서야.

대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이나 과탐논술같이 “진짜” 과학이랑 I과목 탐구의 공부법이 다르듯이, “진짜” 영어랑 수능영어 풀이의 접근법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 영어공부를 할 때 마인드 자체를 영어를 공부하는게 아니라, 수능영어를 체화하겠다는 마인드로 접근해야 해. **결국에 우리가 필요한건 90점이잖아?**

이번에 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영어가 많이 어려웠다고 해. 그래서 이 시험지를 낱낱이 분석하면서 어떻게 수능영어에 접근해야 할지를 함께 알아보자.

풀이순서 및 시간 배분

나는 영어듣기를 풀이할 때, 18~20번, 25~28번(총 7문항)은 무조건 풀이하는 편이야. 이정도 난도의 문제는 누구나 영어듣기를 풀이할 때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독해문제 풀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무조건 풀기를 권해. 사실 나는 듣기할 때 21~24번중에서 3개까지 풀이해서 듣기할 때 10문항을 같이 풀이했었는데, 21~24번 문항은 최근 함정이나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장치를 평가원이 출제해서 추천하진 않아. 아무튼 7문항을 끝내고, 3페이지를 듣기할 때 첫 번째 문장 정도는 읽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나는 빈칸을 가장 마지막에 풀어. 이게 보통은 가장 고난도 문항이기도 하고, 결국 시간이 부족하면 찍는 문항이 여기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89점 실력이면 보통 빈칸에서 2개를 틀리고, 다른데에서 2개를 틀리는 경우가 매우 많을거야. 이말은 즉, **빈칸 4문제(혹은 본인이 모르겠는 4문제)를 제외한 다른 문항을 모두 맞추고, OMR체크했을 때 적게 나온 번호로 빈칸을 찍어 한두개를 맞추면 1등급이란 애기지.**

89점 실력을 가진 수험생이라면, 50분간 빈칸 4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를 신경써서 무조건 맞는것과 빈칸 4문제를 포함해서 빠듯하게 모든 문제 건드리기 둘 중에서 전자가 1등급을 맞을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그래서 내가 수험생일 때 빈칸을 마지막에 풀이해서 50분간 빈칸 4문제 제외 모두 맞추기 -> 빈칸 3문제 제외 모두 맞추기 -> 2문제.. 식으로 목표를 상향평준화 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세웠었어.

풀이순서는 쉬운문항 -> 어려운 문항 순으로 푸는 걸 추천해. 그래서 같은 유형(순서, 문장 넣기)에서는 2점짜리를 먼저 풀고, 3점짜리를 푸는 것을 권해.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점수를 받고, 3점문항을 푸는 것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거든.

듣기 17문항-22분, 독해 28문항-48분인데, 빈칸을 제외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 15분이 남았으면 충분히 잘 풀이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많은 2,3등급 친구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시험지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읽

고 해석해야 하는가를 많이 묻곤 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수능영어는 읽고 해석할 부분과 **읽기만 할 부분**으로 나뉜다고 생각해. 89점과 1등급을 나누는 실력은 바로 이 **읽기만 할 부분**을 잘 알아낼 수 있는가가 핵심인 것 같아. 그럼 어떤 문장이 전자에 속하고, 어떤 문장이 후자에 속할까? 9평을 복기하면서 각 문장별로 둘 중 어디에 해당 하는지를 확인해보자.

2022학년도 9월 평가원 영어 해설

18번

이 문항은 글의 목적성 판단이야. 목적성 판단 문항은 보통 서론-본론-결론이 매우 명확하게 나뉘어 있어서, 내가 풀이할 때는 보통 중간 본론 구간부터 읽는 편이야. 그래서, My name is~부터 in need 까지는 서론부에 해당하니까 읽기만 해도 되겠지.

여기서 빼애액 아니 그럼, 서론과 본론부는 어떻게 구분하는데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 좋은 질문이야.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서론은 무엇일까? 우리가 오랜만에 연락하는 친구에게 부탁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첫 마디부터 부탁하는 말로 시작한다면,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겠지? 잘 지냈니부터 시작해서, 궁금하지도 않은 시덥잖은 추억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처럼, 이 글에서도 서론은 본론을 말하기 위한 들러리에 불과할 거야. 그럼, 이 글에서 서론부와 본론부를 구분짓는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 바로 'To'야.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서 **목적성**을 학습한 기억이 있지? 즉, To make the concert more special, 라는 문장이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서 18번의 문제를 다시 읽어볼까? -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To~special 다음 나오는 부분에서 답이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생각하자. we want to invite you for the opening of the concert. 그래서 답은 2

19번

이 문항은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항이야. 크게 코멘트할 부분은 없지만, 이 유형을 풀이할 때, **감정을 긍정-부정으로만 나눠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 3번 선지와 4번 선지를 보면, anxious, impatient는 각각 부정, confident와 calm은 각각 긍정적인 뉘앙스의 단어로 느껴져. 듣기를 풀면서 이 문제를 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급하게 풀려다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래서 틀렸거든.** 즉, 조금 더 세밀한 감정표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19번 문제에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묻고 있는 것이겠지? 정답은 3번이야.

20번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고르는 문항이야.

첫 문장에서 우리는 quick 하고 sure한 해답을 찾는 시대에 살고 있대. 다음 문장에서는 computer가 parents의 대체할 수 있다고 하네. even의 등장 - 앞 문장에서의 어떤 부분을 심화해서 다시 알려주는 표지이네. **즉, even이 등장했기 때문에 even ~ replace parents는 읽기만 해도 돼.** 앞문장인 We ~ sure solutions을 심화해서 부연설명을 해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야.

however의 등장 - 이 유형에서 중요한 표지야. 앞에서 서술했던 내용과 반하는 내용을 기술하면서, 필자의 주장이 본격적으로 등장함을 나타내.

그리고 we make a mistake~ 문장에서는 특정한 교육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다음 문장에서는 We, parents~ with most other people.에서, talk to them, listen to them, enjoy their company, and show them 으로 무려 4개의 쉼표로 문장이 이어져 있어. 쉼표가 여러개 이어진 문장에서는 **쉼표 사이사이에 있는 구절들은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빠르게 속독하면 돼.

즉, 정리하자면 빠르고 확실한 해결을 원하는 시대이지만, 교육에 한해서는 mistake이며,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21번

21번은 19학년도 6월 평가원부터 신유형으로 출제된 유형이야. 밀줄친 내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비유적 표현)를 알아내는 문항이지. Flicking the collaboration light switch를 해석해보면, flick collaboration light switch라고 하니, 협업하는 과정에서의 어떠한 행동변화를 의미한다고 유추할 수 있겠지.

Individuals don't want to be isolated - 개인은 고립되는걸 싫어한다. 글을 읽어가면서 이런 중요한 문장들이 밀줄 친 부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해. 도대체 collaboration light switch와 Individuals don't want to be isolated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For another : 글을 전환하는 표지야. 또 추가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 다음 문장에서는 팀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아는 것은 comfort 와 security를 준다고 하네. 두 문장을 종합하면, 개인은 고립되는 것을 싫어하며, 팀원간 함께하는 것의 이점에 대해 얘기한 거야. It's risky~ 문장에서 이를 부연하고 있어.

다음 나오는 But even though~ 에 집중해보자. 글쓴이는 여기서 자기가 한 말을 뒤집을 거야. reassuring한 감정을 느끼게 하더라도, 조직에게는 개인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하며(go off)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해. 그리고 이는 고립을 싫어하는 개인의 특성상, 그렇게 개인이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leader의 책무라고 하며 마무리하고 있어.

따라서 flick collabortion switch는 2번 선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지.

22번

요지찾기 문항이야. 요지라는 것은 결국 이 글의 본론을 찾자는 것이지. 요지찾기 문항의 팁을 낚시에 비유해볼게. 문제를 풀이할 때, 본론을 무작정 찾으려 하지말고, 마치 서론을 낚시대라 생각하고, 본론(물고기)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하면 좋아. 본론을 무작정 찾으려는 것은 바다에 뛰어들어서 물고기를 잡는 느낌이라고 하면 되려나.

그럼, 서론을 토대로 글쓴이가 본론에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를 예상하며 읽어보자.

첫 문장을 보아하니, professions(직업)과 society(사회)가 협상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해. 여기서 둘 사이의 관계를 두 번째 문장에서 직업의 추구하는 자율성과 사회의 수요 간의 tension이 존재한다고 하였어. 그럼 이 글의 요지는 전문직과 사회 간의 어떠한 관계에 대해 묻는게 아닐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지.

다음 문장에서 “Society’s granting of power and privilege to the professions“에서 사회가 전문직에게 주는 힘과 특권 이야기가 나와. 여기서 어떤 권리가 주어지면 그에 상응하는 의무나 책임을 다해야겠다 라는 내용을 이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어. 다음 문장에서 confer authority ~ those they serve에서 권리와 의무의 행사 정도를 고려한다고 말하고 있네.

나는 As Edmund~ own appetites.“ 문장을 읽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 문장은 앞에서 말한 내용의 부가설명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Autonomy~ 부분에서 1번 선지에 대한 ”자율성“이야기를 보충해 줌으로써 답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23번

주제찾기 문항이야.

주제찾는 문항 역시 22번 문항이랑 마찬가지로 이 글쓴이가 하고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면 돼. 22번 문항에서 풀이한대로 서론을 읽어보고, 이어질 본론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예상하며 읽어보자.

칸트의 관점에서, 기하학적 문양은 완벽해서 미학적 경험을 담기 어렵대. 이 문장을 읽으면, 글쓴이가 기하학적 문양에서 미학적 경험을 찾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예상해 볼 수 있어. 물론 읽다보면,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내가 예상한 내용과 다를 수 있어. 다르다고 해도 괜찮아. 본인의 예상과 맞았다면 정답에 대한 확신을, 본인의 예상과 틀렸다면 어떻게 글이 진행될까를 기대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각각의 장점이 있어.

Insofar~lengths 문장을 보자. 그들은 이런 근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동의한대. 그리고

나는 -- -- 부분은 읽지 않고 넘겼어. 이 또한 부연설명일 것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바로 기하학적 문양은 이해할 수 있지만, but 그것은 감정을 이끌어내지 않는데. 그리고 Forms or phenomena, on the contrary, ~ experience 문장이 이어져. 이 문장 또한 읽지 않았어. phenomena(현상의 복수형)는 geometrical의 반대되는 속성이기 때문에 감정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읽지 않아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

The pleasure ~ mental activity에서, immeasurable 이란 단어가 나왔으니, 이 문장 또한 phenomena에 관한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이 문장에서 예상한 대로 emotional and mental activity라는 감정과 관련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

그럼 여기까지 읽고,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를 예상해보자. 지금까지 글쓴이는 geometry<->phenomena로 반대의 두 속성을 나열해서 설명했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마지막 결론부를 읽어보자. Namely ~ view. 문장에서 phenomenon이 보여지는 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도전하는 데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Furthermore~violated.는 이 문장을 부연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넘기자.

그럼 이 글을 정리하면, geometrical shape<->phenomena를 대조해서 각 속성을 설명하고, 기쁨이 phenomenon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서 온다고 했어. 그런데 아까 phenomena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측정할 수 없는, 감정적으로 느끼는 속성이라고 하지 않았었나?

정리하자면, 기쁨이라는 것은 측정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에서 온다는 말을 하고 싶다는 것이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5번이라고 할 수 있겠어.

24번

제목찾기 문항

앞선 22~23번 문항과 마찬가지로, 글쓴이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있지와 다음에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대체 무엇일까를 예상하면서 읽어보자.

The world~keep order 문장에서, 통치기구가 공공 관리와 감독을 한다는 내용이 등장했네. 다음에 오는 With this를 읽자마자, 이런 관리감독 시스템으로 어떤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겠지. 바로 그 효과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level을 높일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네.

다음 문장에서, Frequently this has **displaced** citizen involvement. 이러한 관리감독이 시민의 참여를 대신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어. displaced를 왜 중요하게 읽어야

할까? 왜냐하면 A(관리감독)이라는 것이 B(citizen involvement)를 대신하고 있다(변화가 발생함). 고 서술되었기 때문이야. 그럼 이 글의 주제와도 먼밀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니?

Responsibility~provider 문장에서, 시민의 책임의식이 중앙기구에 의해 대신되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제시했어. 다음 문장에서 **social change**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active participants가 감소한다고 하네. 마지막 문장에서 이는 serious implicaitons(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지.

25번

일치성 문항

각 선지가 독립적인 문항이고, 3번 이후의 번호에서 정답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 3번부터 5번까지의 번호를 먼저 확인하길 바랄게.

26번

일치성 문항

25~28번은 절대 틀려서도 안되고, 듣기 시간에 풀어야 할 문항이라 매우 난도가 쉬운 편이야.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선지를 먼저 보고 답일 것 같은 선지를 문제에서 내용을 찾아 보는 편이야. 일치성 문항의 경우, **답을 본문에서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문항은 바로 긍정/부정과 관련한 선지들이야.** 1번, 3번 선지와 같이 어떤 사실에 대한 선지가 정답인지를 판단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 예를 들면, 1번 선지를 “석탄 광부의 5번째 자녀였다.” 나 3번 선지를 “뉴욕에 있는 곳에서 학위를 취득했다” 처럼 사실을 바꿨다면 본문을 읽고 선지를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 그래서 5번 선지를 먼저 확인했었어. 그런데 마지막 문장에서 achieved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했으니, 정답은 5번이야.

27번-28번

안내문/광고문의 일치류 판단 문항

나는 이 문항 역시 선지를 읽고 문제를 읽어서 풀이하는 편이야. 이 문항을 풀이하는 팁을 주자면, **숫자가 있는 선지를 먼저 판단해봐.** 27번의 경우 1,5번 선지가 해당되고, 28번의 경우에는 4번이 해당되겠지. 다음과 같이 숫자가 있는 선지들은 안내문이나 광고문에서 그 숫자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디 부분을 읽어야 할지 쉽게 찾을 수 있거든. 쉬운 난도니까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은 것은? 만 유의해서 풀이하면 될 것 같아.

29번

어법 문항

개인적으로 어법문항은 빈칸을 다 풀이하고 마지막으로 풀이하는 문제야. 왜냐하면, 다른 문항과는 다르게, 시간이 촉박할 경우 **한 문장만 읽더라도 답을 알아낼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야.** 문법이 약한 친구들은 마지막에 풀이하는 것을 추천해.

30번

낱말의 쓰임 적절성 판단 문항

이 문항의 유형의 경우, 29번 어법 문항과는 다르게, 한 문장만을 읽고 풀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따라가면서, 여기서 이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를 파악해야 해. 30번 유형의 경우, 정답이 거의 항상 정반대의 의미의 단어를 오답으로 놓은 경우가 많아.

In economic ~ from another 문장에서, 경제 시스템에서 한 영역은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고 있어. For instance~에서 buying이 다른 영역에서의 demand를 생성함을 나타내므로 정답. demand 뒤의 여러 선택지들은 부연설명에 불과하니까 읽지 말고 넘기자.

What is different을 보는 순간, 앞의 economic systems와 transport가 무엇이 다른지를 서술하겠구나를 예상할 수 있겠지? transport의 경우에는 not exist alone한 속성을 가지고 있대.

movement cannot be stored - 움직임은 저장되지 않는대. 음.. 일단 애매하니까 한번 넘어가보자. 다음 문장에서 An unsold product은 economic system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unsold seat on a flight는 transport의 예시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두 가지 대범주를 주고, 예시를 각각 보여주는 글의 형식을 가지고 있구나!를 생각하면서 계속 읽어보자.

다음 문장을 읽어보면, unsold seat 같은 경우는 후에(later) 남은 좌석을 이용할 수 없대. 이 경우에서, opportunity가 seized(잡다)가 과연 옳은 표현일까? 그리고, opportunity는 어떤 기회를 나타내는 것일까? 앞 문장에서 unsold product를 보자. 이 경우에는 remain on the shelf 할 수 있어서 "buy"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지? 하지만, 떠나버린 unsold seat의 경우, 기회를 잡지 못한다. 가 적절한 표현이 되겠지. 마지막 문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내용이 서술되고 있으니 unforeseen demand는 잘 어울리는 단어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야.

이렇게 21번 유형의 문제처럼,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문제풀이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30번 유형을 보면서, 파악하기 애매할 경우에는 일단 넘어가는 것을 추천해. 왜냐하면, 아직 글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글쓴이의 요지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끝까지 읽은 후에, 글쓴이의 요지를 파악하고, 마치 어울리지 않는 문장을 찾는 유형처럼 풀이하면 돼. 말하자면 단어 하나 때문에 어울리지 않게 된 문장을 찾는 거지. 예전 기출의 경우에는 increase-decrease와

같이 완전히 정반대의 단어를 출제하였다면, 이제는 전체적인 맥락을 해석하고 파악하면서 풀이해야 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31번

빈칸넣기

빈칸넣기 유형을 풀이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 빈칸이 앞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마지막에 있는지에 따라서도 풀이하는 방식이 나누어 설명하는 경우도 많아.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점은 글의 맥락을 파악해서 빈칸에 적절한 단어나 문장을 넣는 것이겠지.

when examining~ 문장에서 고고학적 기록은 방대하게 (빈칸) 하대. 다음 문장에서 low archaeological visibility로 인해서 식별가능한 면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해. 그래서 Reconstructing intangible 문장에서 보이거나 만질 수 없는 것->실재하는 것으로 Reconstructure하는 것이 어렵고, 추론의 영역이라고 서술되어 있어.

여기까지만 읽어도 고고학적인 조사는 완전하지 못하고, 추상적->물질적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It is relatively~문장에서는 stone tools, food remains의 예시를 들어 부연하고 있어. 그리고 Using~ 문장도 같은 맥락이지.

마지막 문장에서는 physical remains(쓰레기로 인식되는)->추론의 과정->해석을 이끌어 낸다로 결론짓고 있어.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지.

32번

빈칸넣기

TV를 보는 것처럼 보통의 행위가 몇몇 사람에게는 00한 방법이 될 수 있다.로 글을 시작하고 있어. 이 아이디어를 시험하기 위해, 시험 점수에 대한 거짓 정보를 주고, TV를 보게 했어. 그리고 실험자는 잘못된 비디오를 틀었다고 말하고, 올바른 비디오를 찾으러 나갔대. 거짓 피드백을 받은 참가자는 비디오를 더 오래 보고 있었고, distraction이 효과적으로 불편함을 완화한다고 결과를 서술하고 있어.

1번, 또래? ㄴㄴ 2번, 완벽한 선지 3번, 미디어로부터 생산적인 피드백을 받기? ㄴㄴ 4번, 주어진 task에 다시 집중하기 ㄴㄴ 5번, 자기 반영을 철저히 하게 한다? 완전히 반대의 얘기지.

따라서 정답은 2번

33번

빈칸넣기

첫 번째 문장에서, 개인과 문화적인 행동 간에 상호의존성이 있다고 글을 시작하고 있어. 사람들은 cultural pattern에 따라서 행동하고, 논리적인 함축이나 생각은 이미 존재하는

idea로부터 나온대.->그리고 이것이 cultural innovations이라고 하네.

New ideas~ 문장에서는 such discoveries are inherent in and integral to the conceptual system~에서, discoveries가 결국 시스템에 내포되고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하면서 이를 부연하고 있어. 빈칸 뒤의 문장에서는 개인들의 축적된 work가 corpus of knowledge를 생산한다고 하네. 빈칸에는 1번 outgrowths of previous ideas(이전의 idea로부터 파생된)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해 보이네.

빈칸문제를 풀이하는 팁: **본문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을 추론해서 생각하지 말자. 빈칸을 풀면서 가장 위험한 사고는 : A가 B하니까 b할수도 있지 않을까? A는 B할뿐, b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길 바라. 5번 선지를 보자. cultural idea가 개인의 창의적인 생각을 증진한다고 서술하고 있어. 본문에서는 총체적인 지식으로부터 -> 개인의 idea가 파생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의적인 생각을 promote한다고? 적절치 않아 보이지. 만약 5번 선지를 produce individuals' innovative thinking이라고 했으면 innovative thinking->cultural innovations 으로 볼 경우, 정답일 수도 있어. 하지만 promote는 선넘은 얘기라는 거지.

그리고, **확실하게 아닌 선지부터 지우기**. 2번, 추상적인 추론능력 3번, cultural 보편성의 기반을 이룬다. 4번, 같은연령? ㄴㄴ 이렇게 1,5번 둘중에 하나를 두고 다시 읽어보면서 풀이하는 습관을 가지길 바라.

34번

빈칸넣기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동물에게 00하는 것은 배움의 일반적인 기능이라고 해. 많은 동물들이 선천적으로 낯선 물체를 피한다는 문장이 뒤에 오고있어. 둘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 까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자. however문장에서, 동물이 낯선 물체를 조심하는 것은 feeding과 활동에 interfere with할 수 있다는 중요한 얘기가 나와. 그리고 A turtle~의 예시가 나오지. To overcome this problem~에서, **safe stimuli** 가 필요하다고 하네. 다음 문장에서 **nothing unpleasant happens=safe** 하면, 다시 동물은 행동을 계속한다고 하네. 마지막 문장에서는 낯선 물체가 유용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걸 말해주며 끝나고 있어.

그럼,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야 할지를 예측해보자. 위험하지 않은 자극제가 배움의 기능이라는 게 아닐까? 정확하게 4번이 정답이 되겠지.

1번은 낯익은 걸 다루는데 이점이 있다? ㄴㄴ 2번, predicting possible attacks에 대한 탈출계획? 아니고, 3번, 반복된 사냥실패 역시 아니고, 5번, 주변환경을 주기적으로 살피는 것 또한 글에서 드러나지 않아.

빈칸넣기 문항은 부연설명이 많아. 보통 글의 형식이 (핵심요지), +(for example, 예시), +(furthermore, 부연설명)처럼 요지만 파악해도 빈칸에 들어갈 말을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데, 답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많이 추가해. 이런 부연설명을

모두 읽지 않고 핵심요지 문장만 읽고 풀이할 능력을 기르는 것이 시간단축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

35번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 찾는 문항

이 유형의 문제는 난도가 매우 쉬운 측에 속해, 그래서 6페이지 독해를 풀 때 나는 가장 먼저 풀이하는 문항이기도 해. 그럼 문제를 볼까?

A variety ~ one framework. 이론적인 관점에서 “이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의 insight를 제공한대. Economics의 관점에서는 utility를 최대화하기 위해 이주가 일어남을 가정하고 있어. 1번 선지에서, From this perspective - 전의 문장과의 연결을 매끄럽게 하는 표지가 주어져서 오답일 확률이 매우 낮아졌어. 그리고, 합리성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는 설명을 하고 있어. 2번 선지 또한, 1번 문장에서의 benefits를 받아서 benefits와 관련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네. benefits가 단기/장기 하나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갑자기 3번 문장에서는 사람의 과시욕에 대한 설명이 나오니까 정답임을 알 수 있지.

4번 선지를 보면, benefits에 대한 설명을 앞서 했으니, cost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는 것 같아. benefits에도 단기/장기 하나의 속성만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cost에도 쉽표로 연결된 여러 가지들 중 하나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 5번 선지에서, 심적인 cost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추가로, 35번 유형의 답은 2,3,4 중에 하나 있다고 가정하고 풀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 무조건 2,3,4 중 하나다! 는 아니지만, 마치 25번 문항처럼 정답이 있을 확률이 높은 번호라는 거지. ~~그리고, 흐름과 관계없는 아무 문장을 고르는 문제인데, 5번 선지의 단어를 친절하게 설명해줄 만큼 성의를 다해서 관계없는 문장을 넣었을까?~~

36번

글의 순서 유형

우선, 박스 안에 들어있는 문장이 서론부에 해당하니까, 어떤 내용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자. 그리고, 확률적으로 A가 먼저 올 경우는 매우 작으니까, B와 C를 읽고, 어떤 문단이 박스 문장과 이어질 것인가를 생각해보자.

박스 문장을 해석하면, Green products(gp)는 주류 products보다 재료의 비용이 많이 든대.

그리고 B를 볼까? Even if green product succeeds, ~ 갑자기 gp의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gp가 성공하더라도 회사의 이윤을 많이 잡아먹으니, 주류 products로 성공한 기업들은 보기에 빠른 투자결정에 직면해 보인다(gp를 포기한다.)는 말을 하네.

C에서는, Furthermore를 필두로 해서 gp가 열등한 점을 강조하고 있어. 이는 적은 비율의 고객에게만 매력이 있어 보일거라는 내용을 서술했어.

그럼 A를 보자. They'd rather~에서 They는 company를 의미함을 쉽게 알 수 있어. 그래서 A는 C뒤에 온다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A를 해석하니, 앞 문단을 부연하고 마무리 짓는 느낌으로 문단이 끝나고 있네. 그래서 C-A는 확정이고, 박스문장에서의 products->(B) product가 성공해도 안좋음->(C)의 Furthermore와 Such product로 연결되는 부연설명 순이 매끄러우므로, B-C-A가 정답임을 알 수 있어.

순서 배열 유형의 경우, 솔직히 1번 선지의 A-C-B를 보통 배제하고 풀이하는데, 재작년에 평가원에서 1번 선지를 답으로 낸 만큼, A가 가장 먼저 오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할 거야.

37번

글의 순서 유형

36번과 마찬가지로, 박스문장을 해석하면, 벤처기업이 home assistants로 social robots를 출시하고, 이는 현존하는 smart-home assistants와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robots와 smart-home assistants 둘 중 대명사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명확하게 알면 수월하게 풀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어.

B를 보자. Personal robotic assistants는 물리적 조종이나 이동능력이 없대. 하지만 원거리에서도 존재를 느낄 수 있고,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대. (눈, 귀, 입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우리가 친구랑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입으로 말을 해서 통화를 하는 등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멀리 있어도 소통할 수 있다는 이야기)

C에서는 바로 예시문장을 서술하고 있어. C가 박스 문장 뒤에 오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 함께 음악을 듣는 사례를 서술하고 있네. -> 사회성을 띄는 것 뒤에 예시로 오면 적절하겠대.

A를 보면, They는 물론 motorized해서 이동하게 만들수는 있고, "They"는 함께 있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robotic assistants는 smart-home assistants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들의 사회적인 존재는 unique하게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네. 그럼, 뒤에는 기회/경험을 제공하는 C가 뒤에 오면 적절하겠대.

따라서 B(robotic assistants의 특징)-A(물론 motorized는 가능하지만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기회제공)-C(기회의 예시) 순이 적절해 보이네.

38번

주어진 문장넣기 유형

문장넣기 유형을 풀이하는 방식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박스친 문장을 먼저 읽고 본문을 읽을 것인가, 혹은 그와는 반대로 본문을 읽고, 박스친 문장을 읽을 것인가로 보통은 나눠지. 나는 후자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이하는 편이야. 물론, 전자의 방법이 편하다면 그렇게 풀이해도 좋아! 나도 두 가지 풀이법 모두를 사용했었지만, 지금은 후자의 방법으로만 풀이하고 있어. 일단 박스친 문장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문장인지 도통 감을 잡을수가 없었어. 그리고 38번과 같은 유형의 본문을 읽다보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추가적인 문장이 들어가면 글의 흐름이 매끄럽겠다 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았어. 이 느낌을 가지고 박스친 문장을 읽고 대입해보면 맞는 경우가 여럿 있다라고. 그때부터 후자의 방법으로만 풀이하게 되었어.

The earliest humans~문장에서 초기의 인류는 한정된 자원의 물질을 이용하였다고 하였어. With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그대로의 물질을 가공하여 사용했다고 서술하고 있네. Furthermore,~문장에서는 열을 사용하거나, 다른 물질을 첨가함으로써 성질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 At this point,~문장에서는 물질의 이용은 선택의 과정이라고 서술하고 있어. This knowledge,~문장에서는 이 지식을 이용해 **그들이** 물질의 다양한 종류의 성질을 다룰 수 있다고 하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앞 문장에서 나오지 않아서 글의 흐름이 매끄럽다고 생각되지는 않아. Thus, tens of~ 문장에서는 수천가지의 물질이 발전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어.

그럼, 박스 안의 문장을 보자. 과학자들이 성질과 요소의 구조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네. 4번 문장 이후의 This knowledge만 있었다면,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였을거야. 하지만, They가 가리키는 것이 과학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4번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결국 앞의 순서유형과 마찬가지로, 문장넣기 유형도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 문장을 읽다가 대명사가 나온다면, 어떤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39번

The growing complexity~ 문장에서 사회 역학적으로 음식을 고르는 것의 복잡함이 생산자들과 광고주들에게 어려움을 증대하고 있다고 하네. In the past,~ 문장에서는 과거와의 비교, 적절해 보이네. 그리고 대량생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그리고 Nowadays~ 문장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파편화와 개인취향의 다양화를 이야기하고 있어. Everybody~문장까지도 별 무리없이 흐름이 자연스러워 보이네. In reality,~ 문장에서 개인적인 취향이 결국에는 여러 주제들(쉽표로 연결한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겹칠 수 있다. 마지막 문장을 보면, These consumer communities~.. communities 가 도대체 왜 나온걸까? communities는어떠한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야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박스 친 문장을 보면,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더 큰 정체성으로 묶일 수 있다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어.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거지.

40번

내용 요약 유형

The computer~books, It packages~memorization.에서 컴퓨터가 정보를 다루는 능력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어. 이는 In dealing with~decade ago. 까지 연결되지. 그 다음 문장에서 But, 으로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네. diminishes perspective -> computer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좋은 점을 이야기하다가,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어. 그럼 요약을 앞부분에는 긍정적인~, but, 뒷부분에는 부정적인~ 으로 구성하였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어.

어떤 부정적인 면이 있을까? Because~significant 문장에서, 중요도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음 문장에서 policymakers가 정보를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든대.

그럼 요약문을 보자. computer가 정보를 관리하는 데에는 competent(능력있는)하지만, 그것은 comprehensive(포괄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해한다. 가 어울릴 것 같아.

41번

제목짓기 유형

41~42번은 요지찾기 문항이랑 적절한 낱말찾기 유형의 긴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글의 길이가 길지만, 마지막 페이지는 난도가 쉬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크게 부담은 없을거야.

41번 유형을 풀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글의 제목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글의 매우 협소한 부분을 나타내는 선지가 매력적인 오답으로 생각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오답선지는 (Side effects of AI) 이런식으로 출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 **글의 길이가 긴 만큼, 글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을 선택해야함을 잊지 말도록 하자.**

42번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기

풀이법은 30번을 참고하자.

43번

순서 배열

36~37번 문항을 참고해서 풀면 돼. 41~45번 문항은 글의 호흡이 길지만, 문장의 난도가 쉽고 평이해서 동화책을 읽는다는 느낌으로 풀이하면 돼.

44번

가리키는 대상이 넷과 다른 것

글을 읽으면서 등장인물이 누구누구가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자. Sally와 Katie가 등장한다고 할 때, 주어진 대명사가 누군지를 판단해서 S와 K를 글을 읽으면서 표시해두면 44번 유형을 풀기 한결 수월할거야.

45번

내용일치

43~45번 문제를 풀 때 나는 먼저 45번의 선지를 모두 읽고 본문을 읽는 편이야. 어차피 4개는 맞는 말이고, 1개도 결국 긍정/부정만 바뀌서 출제하기 때문에, 한글로 이 글이 무슨 스토리를 이야기하는지, 줄거리를 대강 파악할 수 있어. 45번 선지를 보면, 사진수업, 요리, 음식, 요리시험준비 이런 이야기가 진행됨을 알 수 있지.